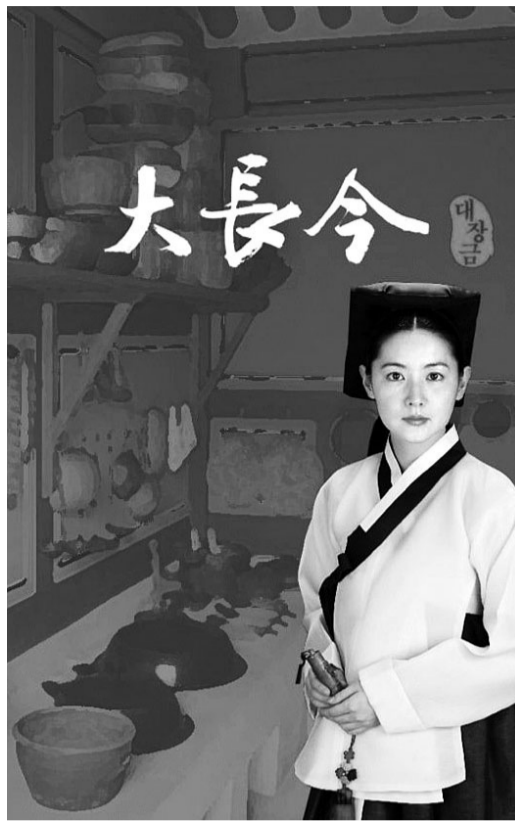


tvN '시그널'



MBC '수사반장 1958'



'대장금'

류준열·한소희 “우린 연인”

열애설 하루만에 인정
환승연애 의혹은 부인



류준열

한소희

한소희와 류준열이 열애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류준열이 옛 연인 헤리와 헤어진 뒤 한소희와 알게 됐다며 이른바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했다.

한소희는 16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이는 맞지만,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당시는 이미 2024년의 시작이었고, 그분과의 결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됐으며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은 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준열이나 헤리 등 다른 당사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맥락상 전날 불거진 열애설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류준열의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 “류준열이 올해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며 “류준열은 결별 후 한소희를 알게 됐고 최근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두 사람이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글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류준열과 한소희의 소속사는 각 배우가 하와이에 머무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열애설과 목격담에 대한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류준열의 옛 연인 헤리와 열애설이 불거진 한소희가 같은 날 SNS에 각자 류준열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헤리는 SNS에 하와이를 연상케 하는 휴양지 사진과 함께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고 류준열에 대한 팔로우를 취소했다.

이어 한소희도 SNS에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며 “저도 재밌네요”라고 썼다.

헤리와 한소희가 올린 글을 두고 누리꾼이나 팬들은 류준열이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른바 ‘환승’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랜 연인 사이였던 류준열과 헤리의 결별은 작년 11월 알려졌다.

한소희는 전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이날 블로그에서 “짜증하고 구차했다”며 “가만히 있으면 뭘 걸 제가 환승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은 그분께도 사과드릴 것이며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때 그 명작 드라마 다시 온다

35년 만에 프리퀀(시간상 앞선 이야기를 다룬 속편)이 제작되는 ‘수사반장’, 8년 만에 시즌2 대본이 집필 중이라고 발표된 ‘시그널’.

오래전 흥행했던 드라마의 속편 내지는 같은 주인공을 다루는 작품이 잇달아 제작돼 전작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방송가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첫 방송을 앞둔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은 1989년 종영한 ‘수사반장’과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10년 이상 앞선 시절의 이야기를 담는다.

최불암 주연의 ‘수사반장’은 1971년 3월 6일부터 18년 동안 880회가 방영됐다. 최고 70%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판 수사 드라마의 시초로 꼽힌다.

‘수사반장 1958’은 제목처럼 1958년을 배경으로 ‘수사반장’에서 최불암이 연기했던 박영한 반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다룬다. ‘모범택시’ 시리즈의 인기를 이끈 배우 이제훈이 청년 박영한을 연기하고, 이동휘가 동료 형사로 출연한다.

tvN 드라마 ‘시그널’ 역시 2016년 3월 종영한 지 8년 만에 속편의 대본이 집필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라 사피엔차 대학에서 열린 K-콘텐츠 관련 행사에서 “김은희 작가가 ‘시그널’ 시즌2 대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그널’ 시즌1 각본을 쓴 김은희 작가도 참석했다.

‘시그널’은 과거와 현재의 형사들이 무전기로 시간을 뛰어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기 미제 사

MBC ‘수사반장’·tvN ‘시그널’ 각각 35년·8년만에 속편 제작
이영애, 10년만에 ‘의녀 대장금’ 성공한 전작 흥행 이슬지 주목

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시즌1은 이제훈, 김혜수, 조진웅이 주연을 맡았다.

이 작품은 흥미로운 소재와 짜임새 있는 서사,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를 바탕으로 13%대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 케이블 채널 드라마로서는 큰 성공을 거뒀다.

시즌2의 세부 정보나 방영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2004년 MBC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해 사랑받았던 이영애는 10년 만에 다시 의녀 장금으로 분장한다.

제작사 판타지오는 올해 10월 ‘의녀 대장금’(가제)의 첫 촬영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영애를 캐스팅했으며 드라마 작가와 계약을 마쳤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엔 드라마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금’은 조선시대 의녀로 기록된 인물 장금(이영애 분)을 주인공으로 세우려 가상의 이야기를 덧댄 작품이다. 최고 시청률은 57.8%에 달했다.

‘의녀 대장금’은 ‘대장금’과 동일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같은 배우가 출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편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하지만 작가와 제작사가 다르고 저작권 등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속편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대장금’의 극본을 쓴 김영현 작가의 소속사인 KPJ는 ‘의녀 대장금’이 김 작가와 무관하며 ‘대장금’과는 별개의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판타지오도 이런 구분을 인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이 지나 후속편이 제작된 사례는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 시즌이 방영됐던 tvN 예능 ‘크라임씬’은 최근 티빙 오리지널 ‘크라임씬 리턴즈’로 7년 만에 돌아왔다.

‘크라임씬’ 시리즈는 시청률이 높지는 않았으나 고정 시청자층이 있었고 2017년 시즌3 종영 이후 속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속편은 완성도가 전작에 미치지 못하면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한다. 세계관과 설정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전작과 같은 배우를 캐스팅하려면 훨씬 많은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대신 성공한 원작에 기대 주목받기 쉽고 어느 정도 재미를 보장한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종영한 지 오래된 작품의 속편을 제작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미 성공한 작품의 이야기를 가져온다는 자체가 흥행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만큼 속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파묘’ 천만 고지 보이네

900만 관객 돌파

장재현 감독의 ‘파묘(사진)’가 올해 첫 천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뒀다.

17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파묘’는 개봉 24일째인 전날 900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말 천만 영화가 된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 개봉 27일째 900만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파묘’의 흥행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이런 속도라면 다음 주말쯤 ‘파묘’는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땀글부대’와 ‘고질라 X 콩: 뉴 엔파이어’가 개봉하는 이달 27일까지 ‘파묘’의 흥행세를 꺾을 만한 이렇다 할 대작 개봉도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민식·김고은·유해진·이도현 주연의 ‘파묘’는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이 어는 부잣집의 의뢰로 오래된 묘를 파헤치면서 겪게 되는 무서운 일을 그린 오컬트 미스터리다.

/연합뉴스



땅을 찾는 풍수사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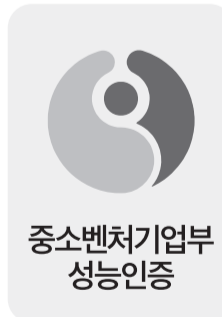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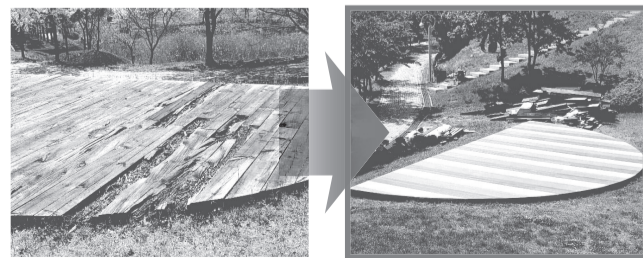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